

全國民科學化運動의 旗手로써

崔鍾洸長官 제 12 회 科學의 날 紀念式서강조

第12回 '科學의 날' 紀念式이 4월 21일 崔鍾洸科技處長官, 崔載九國會經科委委員長, 尹天柱서울大總長, 千柄斗 KIST所長 等 科學技術界人士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崔鍾洸科技處長官은 이날 式辭를 통해 「國力の 尺度는 國土의 넓이나 自然資源의 賦存狀態와 人口의 多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資源과 人力을 가장 効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科學技術의 發展水準에 있다고 전제, 民族의 力量을 바탕으로 하여 科學을 振興하고 技術을 革新하여 우리가 바라는 80年代 高度福祉産業國家를 建設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崔장관은 또 國家의 次元에서 전개되고 있는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은 「國民 모두가 科學을 崇尚하고 技術을 生活化하는 國民氣風을 振作하고 發展하는 現代科學技術의 惠澤과 文明의 利器를 全國 곳곳에 普及 浸透시켜 앞으로 다가올 고도 산업사회에 능률적으로 적응할 合理的이고 創造的인 國民精神을 확립시켜나 가는데 있다」고 말하고 科學技術人 모두가 「이 운동에 앞장 서서 生活科學을 啓蒙하고 農漁村技術 開發現場에 뛰어들어 民族의 슬기로운 科學傳統을 開發시키는 旗手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紀念式에서는 科學技術의 振興과 發展에 기여한 李相洙 한국과학원 교수등 27명의 科學技術 有功

者에게 褒賞을 했으며 이어서 第12回 大韓民國科學技術賞을 施賞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韓國技術團體總聯合會 會員一同은 ① 80年代의 高度産業社會 建設을 促進하기 위해 國家經濟發展과 自主國防態勢 確立에 앞장서고 ② 科學技術의 早速한 自立을 위하여 高級頭腦를 비롯한 技術人力의 養成과 技術革新에 力點을 두며 ③ 全國民의 科學化運動 促進을 위하여 科學精神의 涵養과 生活科學 技術普及에 先導의 役割을 擔當한다는 내용의 3個項의 決議文을 採擇했다.

科學技術 有功褒賞者 및 科學技術賞 受賞者 名單은 다음과 같다.

- ◆ 國民勳章 牧丹章: 李相洙(54·한국科學院 教授) ◆ 國民勳章 冬栢章: 申明淳(58·財團法人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 國民勳章 木蓮章: 崔浦錫(44·KIST 高分子研究部長)·金斗弘(55·KORSITC所長)
- ◆ 國民勳章 石榴章: 朱軫淳(58·高大醫科大 教授)·趙奎奎(55·慶熙大 文理科大 教授) ◆ 銅塔産業勳章: 李元馥(53·大韓船空<株> 專務理事) ◆ 鐵塔産業勳章: 高海峯(60·江原産業<株> 技術고문)·白鶴基(49·第一合織<株> 代表理事)·洪鳳來(53·東洋金屬工業<株> 代表理事)·崔行益(59·泰興産業<株> 副社長) ◆ 錫塔産業勳章·鄭宙和(40·現代自動車<株> 技術研究所長·朴華述(56·盛智工業專門大學學長) ◇ 國民褒章: 裴孝元(52·高麗人蔘研究所長)·權臣漢(48·KAERI 放射

- 線應用部長)·俞成在(42·KIST 工業經濟研究部長) ◆ 産業褒章: 金成吉(35·仁川製鐵<株> 次長)·李章夫(38·金星通信<株> 技術開發室長) ◆ 大統領表彰: 崔先錄(40·서울新聞社 文化部 科學擔當記者)·鄭炳雲(32·<株> 文化放送記者)·李大熙(49·韓國原子力産業會議 常任理事)·林廣澤(43·韓電<株> 第2建設部次長)·李俊模(45·오림포스電子<株> 副社長) ◆ 國務總理表彰: 朴澤奎(41·建國大 文理科大 教授)·李相薰(52·KAERI 安全工學部長)·李瑞來(47·KAERI 環境化學研究室長)·安文錫(35·KIST 電算組 織開發室長 職務代理)

▲ 第12回 大韓民國 科學技術賞 受賞者 ◆ 科學賞(大統領賞): 沈貞燮(53세·서울工大 教授) ◆ 技術賞(大統領賞): 金重漢(39세 曉星重工業<株> 昌原工場·副工場長) ◆ 技術賞(大統領賞): 李騏燮(49세·韓國綜合化學工業<株> 忠州工場 電氣整備工)

天體觀測機器 등 공개 天文台, 國民生活科學化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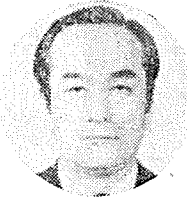
國立天文臺(臺長 閔英基)는 第12回 科學의 날을 맞아 國民生活의 科學化를 위한 科學技術 啓蒙事業의 일환으로 天文知識을 보급하기 위해 망원경을 비롯한 각종 天體觀測機器와 施設을 공개하고 아울러 天文學講演會를 實施했다.

4월 10.11일 양일간 科學技術會館에서 실시된 이번 天文學講演會는 閔英基박사(국립천문대장)의 天文學의 새로운 發見들"과 김용희연구관(국립천문대)의 "現代人과 天文學" 및 "우주의 신비"를 다룬 슬라이드와 天文映畫가 上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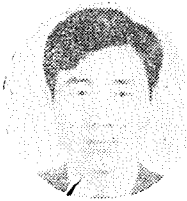
榮譽의 科學技術賞受賞者 프로필

科學賞 沈 貞 燮...感光性高分子연구발표  
 技術賞 金 重 漢...變壓器 國產化의 主役  
 技能賞 李 騏 燮...第1肥 制御裝置 改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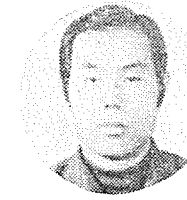
科學技術人 最高의 榮譽인 大韓 民國 科學技術賞이 淸두번째로 21日 授與되었다. 이번 受賞者의 功績事項을 살펴본다.



◇ 沈貞燮 씨



◇ 金重漢 씨



◇ 李騏燮 씨

科學賞 수상자인 沈貞燮 씨는 26년간 敎育界(化學工學分野)에서 從事하면서 56篇의 學術研究論文(研究用役報告書 21편 포함)을 發表하였고 高分子科學에 관한 大學 및 大學院敎材를 著述한바 있으며 特殊感光液을 製造하여 發明特許를 획득한 바 있다. 특히 感光性高分子에 관한 研究는 英國, 日本 및 國內學會誌 등에 發表되어 이 分野에 獨창적인 新領域을 確立하였으며 과거 10년간 8명의 박사를 指導輩出하는 등 우리 나라 科學技術發展에 크게 貢獻하였다.

沈貞燮교수는 서울대학교 工科大學 化學工科와 서울大學校大學院 化學工科, 英國글라스코工大(DRTC), 日本東京大學校大學院 化學研究科(博士)를 나왔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수로 在職중이다.

한편 技術賞 수상자인 金重漢씨는 15年間 電氣工業分野에 從事해 오면서 全量輸入에 依存하던 345,000V 超高壓 大容量變壓器 開發에 성공한데 이어 發電所用 超高壓 大容量 變壓器(3φ 475,000KVA 345,000V)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變壓器의 國產化를 이룩하는 등 生産技術活動을 통하여 우리나라 産業技術發展에 크게 貢獻했다.

金重漢 씨는 서울대학교 工科大學 電氣工學科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曉星重工業(株) 昌原工場 副工場長이다.

또한 技能賞 수상자인 李騏燮씨는 馬山工高(電氣科12年)를 修了한 후 忠州肥料工場 建設工事を 거쳐 24年間 電氣整備業務에 종사해오면서 뛰어난 創意力과 經驗을 쌓아 공장稼動에 支障을 주는 여러 問題點을 迅速히 補修 解決하였다. 특히 舊安모니아工場(第1肥)增設時 空氣壓縮機 등 制御裝置의 改造로 試運轉期間短縮과 그밖에 發電機, 變壓器, 遮斷機 등 각종 電氣機器의 잦은 故障을 조기 발견하여 事故豫防과 신속한 措置를 하였으며 후배 技能工養成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꾸준한 技能鍊磨로 우리나라 生産技術發展에 크게 기여했다. 李騏燮씨는 현재 韓國綜合化學工業(株) 忠州工場 電氣整備工으로 근무하고 있다

마음마다 科學심고  
 손끝마다 技術심자

科總選定 全國民科學化운동標語當選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會長 閔寬植)는 지난 3월 현상모집한 全國民 科學化운동標語 當選作에 합병일씨(용산구 보광동)의 “마음마다 科學심고 손끝마다 技術심자”를 佳作에 장흥기씨(동대문구 전농동) “生活의 科學化 繁榮의 지름길”과 권태금씨(관악구 신대방동)의 “生活속에 科學심어 이룩하자 科學韓國”등 3편을 選定했다.

科總은 법국민적으로 推進되고 있는 全國民生活의 科學化運動의 一環으로 全國民科學化標語를 懸賞보

집, 지난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접수된 총 900여편의 응모작 가운데 本選에 오른 215점을 國文學者 이희승박사를 비롯한 6명의 심사위원이 엄선한 결과 당선작 1편과 가작 2편을 뽑은 것이다.

科總은 이에 대한 시상식을 4월 1일 과총회의실에서 거행하고 당선작에 10만원, 가작에 5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과총은 입선된 標語를 산학학회 및 단체에 公文發送時나 冊子發刊時 삽입케 하는 등 적극 활용케 할 방침이다.

# 故金允基名譽會長 永訣式

4일 科總葬으로 科學技術會館서 嚴守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名譽會長 故 金允基 박사의 永訣式이 400餘 科學技術界 人士가 參席한 가운데 4월 4일 상오 11시 科學技術會館에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葬으로 엄숙히 行해되었다.

故人에 대한 默念으로 시작된 이날 永訣式은 愼武賊 건축학회장의 故人에 대한 略歷報告 및 安京模 장례위원장의 弔詞에 이어 李宣根 韓國精神文化研究院院長의 追慕辭와 閔寬植 喪禮의 人事가 있었으며 崔鍾浣 科技處長官 등 科學技術界 人士, 遺族, 親知 등 400 여명이 차례로 焚香, 故人의 명복을 빌었다.

이 자리에서 安京模 장례위원장은 弔詞를 통해 「金允基 선생의 일생은 이 나라 工學界의 大元老로서 科學技術發展에 求心의인 役割을 하였고 篤實한 佛弟子로서 佛敎의 大道를 몸소 實踐하셨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80년대 高度産業國家로 지향해 가고 또 生活의 科學化가 絶실히 요망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선생님과 같은 行政과 技術을 겸비하신 지도자께서 오래도록 생존하시어 갈길을 일러주셔야 할 텐데 惘然히 저세상으로 가셨다」고 애통해 했다.

安 위원장은 과총회원들은 선생이 남기신 淸령·성실하심을 본받아 과학기술발전에 있는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하여 선생께서 生前에 못다 펴고 가진 遺志를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活眼 故 金允基 박사는 1904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1920년 대구 보통학교를 거쳐 日本 早稻田大學 理工學部에서 建築工學을 전공했으며 64년에는 漢陽大學校에서 名譽工學博士學位를 받았다. 1924년 日本에서 귀국 후 鐵道局 工務課에入社, 官界에 첫발을 들여놓은 뒤 우리나라 鐵道 發展에 기여한 공적으로 1950년 交通部次官에 昇進, 66년에는 交通部長官에 취임했으며, 69년에 政務擔當 無任所長官에 이어 同年 建設部長官을 역임한 뒤 다시 69년에 無任所長官을 歷任, 交通建設行政에 크게 기여했다. 故 金 박사는 또 관직 외에도 서울대, 한양대, 덕성여대 강사 및 航空大學長을 역임하여 後學養成에도 盡力하였으며 大韓建築家協會長, 建築學會長, 初代 統一主體國民會議 運營委員等を 지낸 바 있다. 특히 科總會長을 10여년간 역임해 오는 동안 科學技術會館 建立 등 우리나라 科學技術 發展에 크게 기여한 공로

로 1978년 “과학의 날”에는 産業部門 최고의 영예인 金塔産業勳章을 받았으며 이밖에도 大統領表彰(1952), 서울市文化賞(1954), 美合衆國 自由勳章(1955), 淸조근정훈장(1968), 泰國一等白象勳章을 받았다.

故 金允基 박사는 현재까지 韓國産業開發研究所長, 國立公園協會長等を 맡고 있었다. 故 金允基 박사는 執務中過勞로 쓰러져 入院加療中이었으나 2일 19시15분 서울 영등포구 시흥 2동 自宅에서 享年 75세로 別世했다. 故人의 遺骸는 경기도광주군 실촌면 신촌리 가족묘원에 안장되었으며 遺族으로는 미망인 李英子女史와 3男 4女가 있다.

## 生産工學技術

### 韓·獨워크샵盛了

生産工學技術의 最新動向 및 企業管理에 관한 韓·獨共同워크샵이 지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KIST에서 열렸다.

韓國科學技術研究所와 獨逸生産工學自動化研究所가 産學協同財團의 後援을 얻어 共同으로 開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西獨의 生産工學 및 工場經營分野의 대표적 研究所所長 등 각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專門家 6명과 국내전문가 5명등 11명의 강연이 있었다.

# 韓·日科學者 상호교환 學術活動 공식화

한국 과학재단 · 일본 학술진흥회 讓解覺書 교환

한국 과학재단(이사장 최형섭)은 3월 24일 동계 단회의실에서 일본 학술진흥회(JSP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와 한·일간의 과학자 교환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서명 교환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은 김형기 한국 과학재단 사무총장과 Isao Amag 일본 학술진흥회 이사장(전일본 문부성 차관)이 공동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로써 공동연구,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을 위하여 한일 양국의 과학자들이 상호방문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자연과학은 물론 인문, 사회, 과학분야도 포함되어 있는 일본과의 과학자 교환사업은 장기방문(6개월—1년)과 단기방문(4개월 미만)으로 구분되는데 경비지원의 항공료는 파견국에서 부담하고 방문기간 동안의 체재비는 접수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과학재단과 국제협력 협정이 맺어져 있는 미국·독일·불란서 등이 이번이 4번째로 일본과의 과학협력협정체결로 앞으로 역사적 지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활발하고 긴밀한 공동연구와 협력이 기대된다.

그런데 일본 학술진흥회는 1932년 12월에 설립된 일본 문부성 산하의 특별법인으로서 일본의 학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의 조성, 과학자의 연구 능력 배양, 기타 학술활동의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과학자의 연구능력 배양을 위해서 외국 학술기관과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78년도 현재·미국·영국 서독 등을

비롯한 20개국 29개 연구기관과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 80명에 研究獎學金

### 韓國科學財團서 지급

韓國科學財團(理事長 崔亨燮)은 3월 29일 KORSTIC 강당에서 박사 과정 19명, 석사 과정 61명 등 총 80명에게 금년도 研究獎學金 7,000만원을支給했다.

科學財團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 장학금 총 7,000만원으로 國立 및 私立大學校 登錄金 全額을支給하는 외에 研究補助費로 매달 박사과정은 5만원씩, 석사과정은 4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

基礎科學의 本產인 大學의 잠재능력을 活性化하여 高級 研究人力의 養成을 목적으로 碩士 및 博士 과정에게만 지급되는 이 研究獎學金의 各分野別로 選定된 人員은 다음과 같다.

- ▲ 數學 5명(박사 1, 석사 4) ▲ 物理學 11명(2, 9) ▲ 原子核工學 5명(1, 4) ▲ 化學 9명(2, 7) ▲ 農化學 3명(2, 1) ▲ 生化學 1명(석사 1) ▲ 生物學 9명(4, 5) ▲ 畜産學 1명(석사 1) ▲ 地質學 3명(1, 2) ▲ 資源工學 2명(석사 2) ▲ 金屬工學 5명(2, 3) ▲ 材料工學 1명(석사 1) ▲ 藥業工學 2명(석사 2) ▲ 電氣電子工學 7명(석사 7) ▲ 機械工學 8명(2, 6) ▲ 造船工學 1명(석사 1) ▲ 化學工學 5명(2, 3) ▲ 纖維工學 1명(석사 1) ▲ 土木工學 1명(석사 1)

海外科學者國內定着

## 研究獎勵金制 마련

### 韓國科學財團 올해부터

韓國科學財團은 海外科學者의 國內定着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定着研究獎勵金 制度를 마련키로 했다.

과학재단의 이같은 지원사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高級人力의 수요가 급증하고 理工系大學院生의 敎育에 필요한 敎수 要件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海外 科學者의 유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내 정착에 필요한 장려금을 지원하여 해외에서 습득한 모든 지식을 효과적으로 국내 과학기술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다.

과학재단은 총 1억원의 장려금을 50여명에게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 在歐 閔宣植 博士에 Legion d'Honneur 勳章受與

第6次 國內外 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 在歐側 運營委員長인 閔宣植 박사(在歐科學會會長)가 프랑스 政府로부터 불란서 최고의 명예훈장인 Legion d'Honneur勳章을 받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14일 프랑스 政府가 귀국해서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閔박사에게 전화로 알려왔는데 한국인으로는 61년 주불대사를 역임한 白善燾 장군이후 두번째 받는 것이며 민간인으로써는 처음 받게 되는 것이다.

閔 박사는 62.5 직후 渡佛하여 53년에 불란서 國籍을 취득하고 그동안 프랑스 Nantes大學에서 高體理 理講座를 맡아 왔다.

# “原子力發電所 40基 건설”

崔科技處長官, 原研 開所20周年 紀念학술강연회 祝辭

韓國原子力研究所(所長 玄京鎬) 開所 20周年 및 韓國原子力學會(會長 崔亨燮) 創立 10周年紀念 學術講演會가 4월 12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開催되었다.

이 자리에서 崔鍾浣科技處長官은 祝辭를 통해 「政府는 原子力을 電源開發의 主軸으로 삼고 2000년까지 40基 이상의 原子力發電所를 建設하여 總發電用量的 60% 이상을 原子力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계획을 착오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原子力 發電所 設計엔지니어링技術의 國產化와 原子力發電所用 機資材의 國產化, 原子力發電의 安全性確保 및 核燃料技術開發을 國策의인 課題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 原子力分野에서의 國際協力과 IAEA의 役割(히데다케 가카하나 교수/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연구 및 동위원소 담당)

▲ 우리나라 原子力政策의 方向과 展望(白英鶴/MOST原子力委員)

▲ 原子力發展 技術問題考察(로버트 레시/美國 알곤국립연구소 부소장)

▲ 原子力發電所 建設運轉과 우리의 經驗(김선창/韓電(株)理事)

▲ 장래의 核燃料週期(윌터 마살/英國 原子力公社 부회장)

▲ 우리나라 原子力研究開發機關의 役割(玄京鎬/KAERI소장) 등 6편의 강연이 있었다.

## 〈講演要旨〉

大容量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金善昶 韓電理事 강조

이날 강연회에서 韓國電力 金善

昶理事는 ‘原子力發展所 建設·運轉과 우리의 경험’이라는 강연에서 「국내 賦存資源이 빈곤한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代替에너지源의 하나로 產業發展을 목적으로 한 大容量 原子力發電所建設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고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金 이사는 1987년까지의 확정된 電源개발, 기획에는 9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반영되어 있고 2000년까지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약 40기의 건설이 요망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 1호기는 이미 1978년 4월부터 商業稼動 中에 있고 고리2호기가 1983년 12월, 원자력 5, 6호기가 1984년 9월 및 1985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경북 월성에는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월성1호기가 1983년 4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 제마지역에는 현재 立札書評價 中에 있는 원자력 7, 8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며 원자력 9, 10호기는 부지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경북을 진 근방에 건설될 계획으로 있어 1987년도에는 全體 發電設備容量의 약 36% 정도를 원자력발전이 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原子力利用 적극추진”

白英鶴科技處原子力委員

또한 白英鶴 科技處原子力委員은 “우리나라 原子力政策의 方向과 展望”이라는 강연에서 原子力은 가장 확실하고 自足的인 에너지源의 役割을 할 수 있으며 國家經濟成長에 따른 에너지 需要의 增加에 적절한 供給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豊富하고 유능한 人

的 資源을 活用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에너지源을 다변화 하는데 다른 點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原子力利用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白委員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사업은 78년 7월 古里 1號機의 商業稼動과 함께 본계도에 突入했으며 古里 1號機의 稼動으로 약 6백만 바렐의 석유 수입을 감소시켰다고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원자력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면 무엇보다 국가경제발전계획에 맞추어 長期 原子力開發政策이 뚜렷이 세워져 있어야 하며 이같은 政策樹立은 汎部處의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회망했다. 장기계획의 재평가 및 보완을 전제로 할 때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과제로서 첫째,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가 최소한 10개처는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 둘째, 원자로형의 精確한 選定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셋째, 핵연료주기 對한 問題로서 原鑛, 濃縮, 再處理 過程에 걸쳐 조사, 개발 및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當연한 問題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體制가 整頓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수행과제의 배경에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 건설 技術의 國產化, 機資材製造技術의 國產化, 핵연료기술의 土着化라는 大前提가 걸쳐 있다. 마지막 當면 과제는 원자력인력개발이다.

白委員은 結論으로 我們的 原子力開發 基本정책은 經濟的 그리고 安全性이 보장된 原子力開發을 도모하는데 方向의 바탕을 두는 한편 核燃料週期技術 等 原子力全搬에 걸친 精確·조속한 技術도입과 아울러 도입된 技術의 自立化 方案이 이루어져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같은 과정을 통하여 표준화된 즉 ‘韓國型動力爐’가 整頓될 수 있도록 我們的 원자력 정책이 목표지향적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國家的인 政策結定과 그 結定을 汎部處의인 추진을 爲하여 체계있는 綜合機構의 조속한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原子力20年...展示

### 原研, 開所 20周年 맞아

글년은 韓國에서 原子力의 平和的利用 開發事業이 正式 着手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韓國原子力研究所(所長 玄京鎬)는 이를 紀念하기 위한 갖가지 行事를 마련, 오는 9월에 原研 20周年 紀念式을 거행하고 原子力有功者에 대한 表彰을 하는 한편 原子力發電 所用 機·資材 試製品과 主要 機資材 國產化 豫定品目을 전시하여 原子力 20年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原子力 20年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展示會를 개최할 예정이다.

## 金屬學會 臨總개최

### 研究論文 20篇 발표

大韓金屬學會(會長 金水泳)는 4월 27, 28일 양일간 嶺南大學校에서 79년도 임시총회 및 學術發表會를 開催하고 鐵鑛石燒結工程에서 Calcium Territe의 學動에 對하여 楊澈基(영남대) 등 20편의 研究論文을 發表했다.

또한 이날 前 科技處長官인 崔亨燮 박사의 「韓國의 素材工業과 研究開發方向」에 關한 特別講演이 있었으며 MIT工科大學의 Morris Cohen 박사의 「Martensitic Transformations」에 대한 招請講演이 있었다.

한편 26일에는 경북대학교에서 表面處理技術 세미나를 開催, 日本 理研經金屬(株) 輕金屬研究室 高橋俊郎 박사의 「日本에 있어서의 Al

表面處理의 現狀」에 대한 講演會를 가졌다.

## 韓·日 共同심포지움

### 日本學者 20명 招請

韓國高分子學會(회장 심경섭)는 오는 10월 중순경 日本의 저명한 高分子관계 學者 20명을 招請, 대규모의 韓·日共同심포지움을 열기로 했다.

이와같은 행사계획은 지난 4월 13일 수원 亞洲工科大學에서 개최된 定期總會 석상에서 具體화된 것으로 當學會는 이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총회와 함께 研究論文 發表會를 實施, 4편의 特講과 「나일론 66와 PTMG의 Random Block 공중합체 합성」(한국과학원 조의환 심재섭) 등 17편의 論文이 發表되었다.

이날 特別講演된 演題 및 演士는 다음과 같다.

※ 고체상에 결합시킨 중감제를 이용한 광화학산화반응의 시도/한보섭(아주공과대학)

※ 광분해형 감광성 고분자에 대하여/강두환(단국대학교)

※ Reflection coefficient of Homopore Membranes Effect of Molecular Size & Configuration/최차용(서울공대)

※ On the Foam-forming theory /이서봉(한국화학연구소)

## 英國工作機械展

### 5월 21~26일 까지

英國 機械工業의 發展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英國工作機械展示會

가 오는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여의도 機械工業振興會 常設 機械類展示館에서 개막된다.

英國 海外貿易振興廳과 駐韓英國 大使館共同主催로 열리게 될 이번 展示會에는 英國의 52個 製造業體가 참가, 工作機械와 그밖의 相關 製品이 展示된다.

또 展示會와 동시에 高度技術의 工作機械分野에 있어서 각종 技術的인 문제에 따른 세미나가 開催된다.

## 美國 工作機械展示會 개최

美國 工作機械 및 金屬加工機械 展示會가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서울 여의도 韓國機械工業振興會 展示館에서 열렸다.

美國 商務省과 駐韓美國 大使館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美國의 62個業體에서 出品된 最新 工作機械와 金屬加工機械 400여점이 전시되었다.

한편 첫날 개막식에는 崔圭夏국무총리 裨相禧상공부차관, 윌리엄 H·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등 觀衆인사들이 참석하여 전시관 개막테이프를 끊었다.

## 美 크로테키博士 特別講演

### 國土計劃學會 주최

大韓國土計劃學會(會長 朴炳柱)는 3월 27일 鶴山技術圖書館 講堂에서 美國 Robert R. Nathan Associates의 오레스트 코로케키(Orest Koropecky) 박사를 招請 特別講演會를 開催했다.

이날 Orest 박사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계수입배분과 토지 이용 유형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강연했다.

## 會長에 崔鍾浣씨

### 大韓土木學會定總

大韓土木學會는 4월 21일 大韓建設協會 大講堂에서 第27回 定期總會를 열고 지난 3월 22일 지명위원회에서 선출한 新任會長과 副會長에 대한 認准을 함으로써 次期會長에 崔鍾浣科技處長官을, 副會長에 安守漢 서울공대교수를 각각 選任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79년도 學會賞을 施賞, 功勞賞에 吳石煥씨, 學術賞에 金熙鍾씨(東亞大教授), 李恩賢씨(中央大教授), 그리고 論文賞에 尹龍男씨(陸士副教授) 崔義昭씨(高麗大教授)가 수상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金東暉씨(前 韓國海外建設(株)副社長)의 「우리나라 海外建設의 나아갈 길」, 申文秀씨(서울시지하철본부장)의 「地下鐵現況 및 建設方向」 등의 特講이 있었다.

## 機械國產化設計 설명회 金屬學會, 鑄物協會 주관

大韓金屬學會와 韓國鑄物工業協會는 1978년도 工業振興廳 요청에 따라 金屬學會에서 制定한 機械國產化設計基準에 관한 說明會를 共同으로 主管했다.

4월 28일과 26일, 東亞大學校와 慶北大學校에서 實施된 이번 說明會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設計 및 施工基準制定趣旨說明 / 공진청 표준국장

※ 製鋼用레테 設計 및 示方書 / 金聖秀박사(영남대)

※ 鑄物砂 混鍊裝置 設計 및 施工基準 / 康仁燦박사(인하대)

※ 鑄物用 模型製作 設備 設計 및

準 / 黃龍吉교수(동아대)

※ 鑄型 및 中子用 乾燥爐 設計基準 施工基準 / 趙煥從교수(조선대)

※ 非鐵金屬 및 그 合金의 溶解爐 設計 및 施工基準 / 李陽椿박사(국민대)

※ 表面處理 設備의 設計基準 및 示方書 / 李鍾南교수(고려대)

※ 鑄造型機 設計基準 및 示方書 / 李啓完교수(한양대)

※ 鑄物의 淸淨裝置 및 示方書 / 金東勳박사(서울대)

## 第25回 技能올림픽

### 國家代表 33名 選拔

國際技能올림픽大會 韓國委員會(會長 李洛善)는 오는 9월 2일 부터 18일까지 17일동안 에이베의 콜크시에서 開催되는 第25回 國際技能올림픽大會에 出戰할 國家代表 '靑少年技能選手 33名'을 확정 發表했다. 한국대표단은 지난 23회 유트리히트大會에서 金메달 12개, 銀메달 4개, 銅메달 5개를 획득하고, 24회 부산大會에는 金 22개, 銀 4개, 銅 3개를 획득, 2連覇를 차지한 바 있다.

선발된 33명의 選手는 다음과 같다  
▶ 機械組立 : 劉相喆(18·金星社)  
▶ 精密機器制作 : 金鍾元(20·金星通信) ▶ 프레스工具 : 宋勝鎬(20·金星社) ▶ 工業電子機器 : 高選雄(19·金鳥工高) ▶ 鐵物構造物 : 鄭鍾宜(19·現代自動車) ▶ 機械製圖 : 金元大(20·金星社) ▶ 가스熔接 : 朴炯模(20·現代自動車) ▶ 電氣熔接 : 朴相榮(19·現代自動車) ▶ 旋盤 : 曹圭成(20·起亞產業) ▶ 밀링 : 魯寅源(21·現代自動車) ▶ 木型 : 朴盛鶴(20·金星社) ▶ 配管 : 田鍾大(21·大宇重工業) ▶ 打出板金 : 金學信(19·육군) ▶ 板金 : 鄭夏

璟(19·공군) ▶ 自動車修理 : 朴三烈(20·現代自動車) ▶ 時計修理 : 崔奎彥(20·韓美時計學院) ▶ 木工 : 林泰成(19·서울機械工高) ▶ 美術塗裝 : 李奉柱(20·大韓航空) ▶ 美匠 : 車聖宰(20·건설職訓) ▶ 室內配線 : 李興洲(20·大韓電線) ▶ 動力配線 : 姜韓求(19·金星社) ▶ R·T·V修理 : 安柄球(19·金星社) ▶ 金銀細工 : 曹星載(20·성금사) ▶ 家具 : 禹翼東(20·上一產業) ▶ 椅子 커버의 우키 : 具滋權(20·서울가구공업) ▶ 窓戶 : 孫濟求(18·上一產業) ▶ 煉瓦積工 : 許一雄(19·大邱工高) ▶ 石工 : 李爽奎(20·서암石材社) ▶ 洋服 : 李拜雨(20·1번지양복점) ▶ 洋裝 : 金永富(20·심지의상실) ▶ 理容 : 安正根(20·豐元理容) ▶ 美容 : 李容敏(20·배일미용원) ▶ 料理 : 辛柱澤(19·플라자호텔)

## 5. 12일 春季研究發表會 酪農學會, 서울農大서

韓國酪農學會(會長 陸鍾隆)는 오는 5월 12일 서울農大에서 79年度 春季研究發表會 및 特別講演會를 열고 9편의 學術研究論文을 發表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特別講演으로 日本畜産試驗場 飼養技術部長인 檜垣繁光박사의 乳牛의 繁殖障害와 飼養管理에 관한 강연이 있게 된다.

## 代替에너지 · 컴퓨터 應用 초칭 講演會 개최

### 大韓電氣學會 주최

大韓電氣學會는 4월 17일 電氣會館 講堂에서 「代替 에너지」와 「컴퓨터 應用」을 主題로 '科學의 달' 招請講演會를 가졌다.